

석가모니와 그의 후계자[六]

철학박사 백성욱

그가 慈悲와 恭□의로 外人을 對하라고 敎□한 것을 보면, 물론 宗教的本意에만 止하리라고 單純히 解釋하고자 하겠지마는 다시 생각하여 보면 新□思想□의 惡化를 防止하고자 努力하였던것도 이저바려서는 不可하다. 例하면 現今『간디』를 中心한 印度國民運動의 □律을 보도라도 짐작할 수 업는 것이 아니다.

『좌기야 문이』는 이와 가튼 方式으로 和平裡에서 征服者와 被征服者를 勿論하고 全人類의 幸福을 만든 社會革命을 實行하여 不自然한 生活로부터 自然스러운 意味 잇는 生活로 引□하노라고 四十餘年間을 全印道에 다니면서 新宇宙觀에 依한 社會觀을 宣傳하다가 七十餘歲의 老齡를 『구시나라』城外 樹林間에 바리엿다. 『구시나라』城郊外 森林에는 月餘雨期の 餘物로 雲□가 자욱하고 地上의 溫氣와 樹葉에 아직 마르지 아니한 水分과 黑天으로 내려오는 비는 壯丁도 難□이온 況七十餘勢 老□를 가진 聖者일가! 人類의 幸福을 爲하고자하는, 그의 熱誠도 限이 잇는지라 不得已 病體를 溫氣잇는 地上에던지여 누으니 聖者の 表面上 冷落은 極度일 만큼 그의 精神上 滿足은 正比例가 되엿다. 아즉도 □□을 悟하게 하고 저하는 □□가 熱烈한지라 그 末□을 『아난다』에게 이약이[이야기] 할 □間에는 天空의 □□은 溫氣의 □□으로 電□을 發하여 聖者の 示寂하신 □報을 온 大地에 傳하더라. 그의 不生滅體인 眞理는 그를 崇拜하는 哲人들에 依하여 만흔 人類를 救濟함으로 始하여 近九億의 人衆은 聖者를 中心하여 歸依하며, 現代科學發達은 그의 眞理를 새롭게歡迎하게 되면 그의 口□은 더욱 明白하게 되나니 이것이 現今에 잇서서 우리가 보게 되는 『佛敎』이다.

九

有史以來로 人類는 이 現存한 宇宙를 客體로 두고 一定한 觀察을 가지엿

나니, 이것을 우리는 宇宙觀이라 한다. 그래서 이러한 宇宙觀을 우리에게 준 宇宙自體인즉 우리가 보이려 한 物體 이 物體가 마치 生物 모양으로 規則的 行動을 가지었슴으로 人類의 主目的은 自然이 그 物體 우에 □□하게 된 것이다. 이러한 이유는 結局 이 宇宙가 우리의 研究心を 일으킨 對象이 된것이다. 例하면 『이 世界는 어찌하여 서잇나?』 또는 『이 世界를 누가 만드렷슬가?』 이와 가튼 疑問의 解決은 人類歷史上에 잇서서 略 二種의 歸□를 볼수 잇게 한다.

普通으로 宇宙觀의 土臺가 될 만한 □念인즉 宇宙創造說로 始作하나니, 例하면 『太初에는 「光明」 이거니』 하엿다. 理由인즉 太初, 混沌, □□이라는 文子는 전혀 暗黑한 深夜를 指한 것이니, 그 中에 잇는 모든 것은 一個의 混沌 卽 不規則인 物體, 이들 物體는 서로 一定한 境界가 업시 오즉 暗黑한 體로 原始人類 압헤 보이게 된 것이다. 그러나 光明이 와서 이 混沌에서 □□을 보이게 하여줌에는 前者에 잇서서 보지 못하엿던 物體들의 □□이 비로소 人類에게 보이게 된 것이다. 이들 □□은 마치 누가 만들어 온 것 모양으로 그 다지 明白하게 各個가 規則的인 것이 當時人類들의 □□할 바이엿섯슴으로 原始人類들은 그의 理由를 研究하게 되엿다. 例하면 『各各物體 스스로가 되엿슬가?』 惑은 『누가 이 物體들을 만들엿슬가?』 이에서 사람은 對答하기를 『이들 物體 스스로가 서로 因과 果로 된 理由가 잇슬것이다』 하엿다.